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세대만의!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1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3월 20일 (음력 2월 13일) 목요일

66% "민주당 공천 개혁 실패"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여론조사

"참신한 인물보다 현역의원 공천 때문"

총선 지지 민주 46%·무소속 기타 22%

광주·전남지역 여론 주도층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주당의 4·9총선 후보 공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불만족을 표시한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을 공천 실패의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총선 후보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19일, 광주일보가 자체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 긴급 e-메일 설문조사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404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4·9 총선과 관련 민주당의 공천결과가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6%가 '그저 그렇다', 그리고 22.3%는 '아니다'라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65.9%의 응답자가 '공천 개혁은 실패'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천 결과가 개혁적'이라고 답변한 패널은 34.1%에 그쳤다.

'개혁 공천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3.4%가 '참신한 인물보다는 현역의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권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방식과 절차에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는 답변은 각각 23.3%씩의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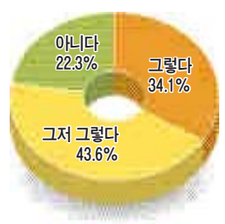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을 비교할 때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는 응답자가 65.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이라는 답변이 32.2%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응답자는 2%였다.

'이번 공천결과만을 놓고 볼 때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6%의 응답자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무소속이나 기타 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8%를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에선 민주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별반 틀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27.2%에 이르러,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층이 적지 않은 변수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개혁공천 성공 했나



■ 개혁공천 실패 이유

▲인터넷 패널=광주일보사가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다. 광주·전남지역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 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멈춰선 레미콘 … 건설 현장 '빨간불'

19일 전국 레미콘 업계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생산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에 동참한 영암지역 한 레미콘 회사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줄 지어 서있다. 〈관련기사 11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시 선발 56.7%로 확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발표

수시모집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되고, 정시모집에서는 논술고사가 대부분 폐지되는 등 '대입 자율화 원년'의 대입 전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19일 전국 198개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의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및 표 8·10면〉

대교협 측은 "대입 자율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안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일정을 당초보다 10여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발표에 따르면 2009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7만8천477명으로 지난해 37만8천268명에 비해 조금 늘었다. 모집시기별로는 수시 1학기 1만1천838명(3.1%), 수시 2학기 20만2천643명(53.6%) 등 수시모집 인원(21만4천481명)이 전체의 56.7%로 정시모집 인원(16만3천996명·43.3%)을 크게 앞질렀다.

정시모집에서는 가군에서 132개 대학이 6만1천190명을, 나군에서 136개 대학이 6만1천329명을, 다군에서 137개 대학이 4만1천47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입 전형요소별로 살펴보면 수시모집에서는 내신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지난해 60개교에서 올해 70개교로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24개교로 지난해보다 5곳 감소했으나 반영비율은 높아져 수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시모집의 경우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이 지난해 45개교에서 올해 13개교로 대폭 감소했으며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해 11개교에서 올해 57개교로 크게 늘었다.

수능 성적은 등급제 폐지에 따라 대학별로 정시모집에서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42.7%로 가장 많았고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27.2%,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이 12.7%, 백분위와 표준점수, 등급을 혼합활용하는 대학이 17.4%였다.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건국대와 한양대는 '입학사정관 특별전형'을 별도로 신설했으며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10개교는 다른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영식·박상천·민화식 공천

〈목포〉 〈고흥·보성〉 〈해남·진도·완도〉

민주 광주·전남 18곳 공천자 확정, 서갑 보류·서울 재심

총선 D-20 비례대표 추천위 구성

통합민주당은 19일 공천심사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목포 정영식 전 행자부차관, 고흥·보성에 박상천 대표, 해남·진도·완도에 민화식 전 해남군수 등을 각각 공천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현역인 이영호 의원은 민 전 군수, 전북 익산갑의 김재홍 의원은 이춘석 변호사에 각각 밀려 탈락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중 18곳, 전국 245개 선거구 가운데 152곳의 공천자를 확정했고,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간 조율을 거쳐 최소한 15곳의 전략공천 지역 후보를 이르면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을에는 현역의원인 조배숙 의원이 재공천됐고 전주 덕진에는 김세웅 전 무주군수, 서울 관악을에는 이성재 전 의원의 중도포기로 단수 후보가 된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광주 서구 갑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보류하고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또 광주 서을에 대해서는 전날 김영진 전 의원을 공천자로 확정 발표했으나 김 전 의원 측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신명자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이사장, 정일용 한국외대 교수,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강금실·김민석 최고위원, 신계륜 사무총장, 김영주 사무부총장, 김규섭 변호사, 박명서 전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김광삼 변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낸 인사들이 재신청한 경우에 대해 "비례대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는 비례대표를 연거푸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도 전남' 농가소득 여전히 전국서 '꼴찌'

연평균 2천754만5천원…경기의 64%

전남지역의 농가소득이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 규모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농가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천754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농가 평균소득(3천196만7천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경북(2천726만9천원)을 제외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 이같은 소득 규모는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경기(4천312만7천원)의 63.9%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낮은 소득수준은 전남 농가를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전남 농가의 평균 자산은 2억2천4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천934만5천원으로 늘어나 자산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최고치인 13.1%에 달한다.

더구나 전남은 지난해 농가 소득이 2006년보다 1.5% 낮아지는 등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사료값과 비료값, 인건비 등이 크게 치솟으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2006년(3천230만3천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농가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근 사료값 등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순수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의 농업총수입은 평균 2천610만2천원으로 4.5% 줄어든 반면, 사료값 인상 등의 여파로 경영비는 1천569만6천원으로 3.1%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혈압 예방 물질 양파서 대량 추출

전남도농기원, 연 400억대 효과

양파에서 고혈압 예방 물질을 대량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과 기능성연구팀(팀장 남승희·사진)은 19일 "양파에서 고혈압 예방 및 치료제로 쓰이는 '퀴세틴(Quercetin)'성분을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추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추출기술은 고가 장비를 이용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 기술개발에 따라 연간 400억원대에 달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수입 대체효과뿐 아니라 양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으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고 구강 암세포 성장을 35%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송기동기자 song@